

# 농업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은 삼랑A.T.I. (Agricultural Textile Industry)



대표 최민석  
053-252 2209

낮으로 풀을 베거나 호미로 김매기를 하던 우리의 농업은 현대에 들어 기계를 사용하고, 살충제와 제초제를 사용하여 과학화된 농업으로 발전해 왔다. 이로 인해 생산물이 증가하고 풍족해졌지만, 흙이 망가지게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에게까지 그 피해가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러면서 몇몇 분들이 농촌의 흙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서히 깨닫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농업도 친환경 농법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초제를 뿌리는 대신 잡초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부직포와 차광막 등이라고 한다. 이런 개량 부직포를 개발, 보급하여 친환경 농사에 앞장서고 있는 삼랑A.T.I.를 찾아가 보았다.

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월남 다녀온 사람들이 고열병 때문에 건강상 피해가 많았는데, 그게 제초제가 원인이라고 방송에 공개되고 난 후에는, 우리 농사에 제초제는 필수적이지만 품앗이를 할 수도 없고, 가족끼리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렇게 작업을 하면



잡초가 무성한 과원

삼랑A.T.I.의 생산품인 '위드스톱'은 잡초의 성장을 억제시키며,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농자재로 2002년 기술표준원의 우수품질인증 EM 획득과, 2004년 신기술실용화부분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및 서울 국제 발명전시회에서 준 '그랑프리'를 수상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위드스톱'을 사용한 과원

'위드스톱'을 개발하게 된 동기에 대해 최민석 사장은 “촌사람이라 결혼을 하고 도시에 나와 살았어도 휴일에는 본가에 농사일을 하러 가야

제초제 성분 때문인지 머리도 아프고 힘이 들지만, 아내가 가지고 온 새참을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은 기분 좋았다"고 회상하며 "그날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짚으로 엮은 거적이 보이기에 끌어 당겨 앉으려고 보니까, 그 거적이 있던 자리에 풀이 누렇게 떠 있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한다. 마침 섬유회사를 다니고 있어 섬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어,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1999년에 개량부직포에 대한 특허를 받고, 농사에 적용되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한다.

장수에서 오미자 밭을 가꾸는 한 농민은 개량부직포는 비닐과 달리 여러번 사용이 가능하고 빗물이 잘 스며들기 때문에 그것이 깔린 상태에서 옷거름을 뿌려도 되어 좋으며 "예전에는 봄 가을로 부직포를 덮고 걷는 저회를 보고 아랫마을 어르신들이 귀찮게 뭘 그렇게 해? 그냥 풀약으로 지지면 되지... 하시며 혀를 차셨는데, 요즘은 관심을 많이 보이신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밭이 깨끗하고, 무엇보다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최근 삼량A.T.I.는 해충의 피해를 막고, 저온기에 채소의 발아, 활착을 증진시키고, 서리와 동해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막덮기 특수소재 부직포를 개발하여 농촌진흥청,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험을 거쳐 '웰그로우'란 이름으로 판매중이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부공해 채소를 재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절대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세 사람 이상의 힘이 합쳐지면 무엇이래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는 최민석 사장은 삼량A.T.I의 생산품인 '위드스톱'과 '웰그로우'가 농사에 있어서 앞으로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칭찬해주시는 분들의 말씀에 힘을 낸다면서 마지막으로 "부직포가 알려지니까 중국에서 비슷한 원단을 수입해 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1년 농사를 망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정확한 검증을 받고 상품의 가치

를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농민들에게 당부하면서, "특허를 받은 제품이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하고, 특허등록 받은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웰그로우' 피복 재배



무피복 재배

1. 웰그로우